

‘큰 회사’ 보다 ‘좋은 회사’ 추구, 정도경영 강화

현대건설(주)



현대건설 설비부문을 이끌어가는
이명규 상무

‘새로운 도약, 희망찬 미래’ 올해의 경영 슬로건

현대건설은 올 2006년의 경영 슬로건을 ‘새로운 도약, 희망찬 미래’로 정하고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으로 대외적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도경영,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하는 고객중시 경영,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김포 고촌 현대아파트]

사업 다각화 기반 확립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 등 3대 주요 경영목표로 삼고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년간 현대건설은 수주 극대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내 대형 공공공사와 해외에서 양질의 공사 수주로 2005년 말 현재 약 25조 3,396억원의 수주 잔고를 기록, 약 5년 치의 풍부한 공사물량을 확보했으며 또한 전년의 1,714억 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3,238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성공리에 경영 정상화를 마무리하였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5년 국내외에서 8조745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3,238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매출은 해외 저수익 공사 마무리에 따른 해외 매출 감소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4조 2,85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올해 8조3,028억원 수주 목표

2006년에도 현대건설은 지속적인 매출 원가율 하락, 영업외 수지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의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주는 국내외에서 지난해 보다 증가한 8조 3,028억원의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매출은 2004년 이후 수주한 양질의 해외공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예정으로 올해보다 증가한 5조 685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며 아울러 순이익은 3,537억원으



[중국 WUXI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Roof 냉각탑 배관공사]

“국내에서는 대형 턴-키 발
주물량 등 공공공사 수주에
역점을 두고, 해외는 중동지
역을 중심으로 오일, 가스플
랜트 공사, 대형 항만공사 등
수익성이 높은 공사들을 지
속적으로 수주할 계획”

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올해 그간의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의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새로운 도약에 나설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올해도 수주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매출 증대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태안 기업도시’ 개발을 본격화하여 내년 초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원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신기술, 신공법 개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큰 회사’ 보다는 ‘좋은 회사’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윤리경영, 투명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정도(正道)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고객으로부터 더욱 높은 안정성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진력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국내 주택시장 침체 등 민간부문 건설경기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형 턴-키 발주물량 등 공공공사 수주에 중점을 두고, 해외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오일, 가스 플랜트 공사, 대형 항만 공사 등 수익성이 높은 공사들을 지속적으로 수주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고유가에 따라 발주 물량이 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주할 방침이며 이러한 해외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2의 중동특

수’를 이끌고 국내 기술력 제고와 외화 획득 등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올해 현대건설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인 태안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회사의 역량을 집중함은 물론 올해 중으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초 실시 계획 승인을 얻어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사업의 경우 지난해 공급한 1만 1,406세대보다 늘어난 1만2,500세대를 분양할 계획으로 1월 김포 신곡리 현대아파트, 2월 영동차관 아파트를 100% 성공적으로 분양하였고 5월 성수동 KT, 6월 용인 상현리 등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현대건설은 실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값싸고 품질좋은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는 한편,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를 통해 주택 명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설비부 3천억원의 매출로 전체 매출의 13% 차지

현대건설의 설비부는 현재 본사 및 국내외 100여개 현장을 중심으로 이명규 상무를 비롯하여 131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비직 임원은 이명규 상무 뿐이었으나 지난 1월 전재영 부장이 상무보로 승진하면서 2명으로 늘어



[청주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기계실]

“현대건설 설비분야의 매출은 약 3,000억원으로 건설산업본부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

났다. 설비분야의 매출은 약 3,000억원으로 건축사업본부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설비분야는 점차 강화되는 고객 서비스 전략과 웰빙, 건강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여건의 성숙에 따라 회사의 발전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더욱 중요한 분야로 인정받는 부서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의 중점 추진 업무를 「최고의 품질 업그레이드, 최고의 브랜드 가치 창출, 수주역량 강화, 인재 육성 및 활용 극대화」로 선정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부서로서의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설비공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클린룸, 제약공장, 지하철 냉방화 공사 등 틈새시장의 수주를 확대하고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강화, 신기술을 공동 개발하여 지적 재산권 보유 및 벤처 투자를 통한 신규사업 분야 개척 등 설비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설비직 간부직원의 소장직 진출 확대를 위해 직무교육, 소양교육 및 경영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현장소장은 설비직에서 한명도 없지만 올 하반기 쯤 지하철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2명 정도의 설비직 간부가 현장소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관리교육등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소장은 건축이 거의 대부분인 현실에서 설비직이 현장소장으로 진출하면 경계하고 협조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야를 설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건축보다 능가할 수 있는 비전 제시와 탁월한 현장관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소장로서의 소양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육질 난방코일 등 신기술, 신공법 개발에 박차

현대건설은 새로운 설비기술의 연구개발과 신공법 검토를 위해 설비부 내에 기술/상품개발팀을 확충하여 사내 기술연구소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요소 기술에 대한 개발, 표준화 업무, 자재의 성능시험은 기술연구소에서, 응용 기술과 공법에 대한 개발, 자재의 적용성 검토는 설비부에서 분담하고 있다.

특히 쾌적한 실내 환경 구축을 위한 냉난방 불균형 해소, 육질의 온열환경 개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설비시스템, 자연환기가 최적화된 평면개발, 외부 조건에 따라 자동 조절되는 환기시스템, 실내 오염원의 국소배기 시스템 등 거주자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타 건설사와의 기술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TREND 변화가 심한 육질 자재의 경우 전문 업체가 참여하는 공모전 및 TREND 발표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중국 WUXI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300m Fabrication 공조기용 배관공사]

“앞으로 시공경진대회를 개최, 우수
업체에게는 공사입찰 기회 부여,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줄 계획”

업체들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신디자인의 신제품을 현대 아파트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된 디자인은 TREND-UP/GRADE-PU 제도를 통해 이미 분양된 아파트인 경우에도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력업체 대형화, 품질관리 전담요원 가동

현대건설의 기계설비부문 협력업체는 75개 업체(공조·소방 45개, 가스 15개, 자동제어 14개, 정화조 9개 업체)로서 과거 다량의 협력업체를 보유했던 것에서 벗어나 소수 정예화함으로써 입찰참여기회를 많이 주도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2003년부터 대부분의 자재를 하도급 계약에 포함 운영하는 협력업체 대형화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협력업체를 대형화한 이유는 현대건설이 지급한 자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부분 협력업체가 보수하는 현실의 모순점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또한 최근에는 기계설비 협력업체도 현장에서 가공하는 횟수를 줄이고 공장에서 자재를 조립하여 현장에서는 장착 및 간편한 설치만 하는 등 시공품질이 좋아진 것도 한 요인이다.

협력업체의 대형화에 따라 현장에는 현장 하도급 책임자 외에 현장소장, 일반작업자 및 SHOP DWG 직원과는 별도로

로 품질관리 전담요원을 공사 초기부터 준공 시점까지 상주시켜 자재관리, 시공품질관리, 공정관리, 대관 및 대감리 업무, 검측수행, 자재승인서 작성 및 관련문서처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 품질관리요원은 협력업체 직원이면서도 현대건설의 유니폼을 입고 작업한다. 그 이유는 대외적으로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무시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현대건설은 일부 현장에서 시행해 본 결과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 전 현장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대건설은 수시로 우수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형화에 따른 그동안 운영상의 장·단점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모든 협력업체에게 공정한 입찰 참여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장별로 품질관리, 하자발생, 자재관리, 기술자 능력, 공정관리, 안전의식 등의 항목에 대하여 시공업체 평가를 분기당 1회 실시후,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우수 협력업체에게는 우수업체 인증서 발급 및 입찰 참여 기회 확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불량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해당업체가 적극적으로 품질 및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등록갱신, 우수 협력업체 선정 및 입찰 참여업체 추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문업체는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확보 핵심역량 확충해야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노력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건설산업 역시 최근 몇 년간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업체수의 증가, 치열한 가격 경쟁,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급격한 소비자의 NEEDS의 변화 등 건설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명규 상무는 “협력업체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며 악화되고 있는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확보, 건설 관리 기술과 같은 핵심 역량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종합건설업체가 수행중인 업무 중 많은 부분이 점차 전문건설업체로 이관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즉 독자적으로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명규 상무가 바라보는 협력업체 상이관 “생사고락은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업체”라야 한다. 단순히 공사를 수주 받기 위한 업체가 아니라 협력업체와 종합건설업체는 서로 상생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업체는 경쟁력에서 앞설 수 없기 때문에 정리 대상업체라고 말한다. 사회적인 변화가 많은 시대에 아직도 운영 시스템 및 자질이 10~20년전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도태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즉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앞서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함께 내부 청탁은 없어야 할 병폐라고 지적한다. 간혹 실력은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알음에 의해 들어오는 업체가 있으나 이런 업체일수록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모를지기 당당히 실력으로 승부해야 경쟁력 있는 업체라는 것이다. 시대는 바야흐로 단순히 공사만을 수주하는 전문업체에서 벗어나 컨소시엄을 통해 종합건설업체와 상생과 협력이 가능할 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분야의 상위 20% 정도가 전 업계를 이끌어가는 만큼

큰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들이 많을수록 큰 회사들이 마음 놓고 손잡고 일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야 업계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화시켜야 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경영환경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명규 상무는 강조한다.

이명규 상무는 또 반짝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앞으로 ‘협력업체의 아이디어 포상제’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PQ 경진대회 및 매뉴얼 경진대회 등은 많았지만 우수시공 및 신공법 개발 등 시공경진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으나 품질향상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시공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은 것. 여기서 입상한 업체에 한해 공사입찰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귀뜸한다.

현대건설은 설계 및 엔지니어링 능력을 확충하여 협력업체와 기술적인 파트너십 구축 및 하도급 운영체제의 지속적인개선, 협력업체 기술정보 축적 및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힘쓸 것이며 협력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연혁

- 1947. 5 현대건설(주) 설립
- 1958. 5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 준공
- 1965.12 태국진출,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수주
- 1973.10 소양강 다목적댐 준공
- 1980.12 총매출액 1조원 돌파
- 1983. 8미 경제신문 'FORTUNE' 지, 미국 이외의 세계 5백대 기업 중 단위회사로 현대건설을 10위 선정
- 1984. 6 140억달러 건설 수출탑 수상
- 1993. 7 국내 최초로 건설업 전부분 ISO 9001 인증 획득
- 1995. 8 서산 간척지 준공
- 1997.8 북한경수로 1, 2호기 공사 착공
- 2004.6 2004 금탑산업훈장 수훈
- 2004.8 미국 건설전문지 'ENR' 선정, 세계 23위 건설 회사